

5월 22일(수)

■자비신행회 '초청법회' = 자비신행회는 법전스님의 상좌인 영주 대승사 주지 원인스님 초청법회를 오전 11시 인사동 흥사단 3층에서 봉행한다.

〈피안으로 가는 노래〉,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라니경〉 등의 저자인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신심명'을 강의할 계획이다.(011)776-3545

■극단 '학전블루' '그것은 목탁...' 공연 = 서울 대하로 학전블루 소극장이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공연한다. 폭력배에게 가족을 잃은 한 조각가가 불교에 귀의, 불상을 조각하면서 진실한 삶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번뇌와 해탈

신행 캘린더

의 의미를 전한다. (02)766-8679



◇사각장애인들이 점자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은평도서관 '점자교육' = '안 보이는 괴로움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서울은평도서관이 오전 10시 1층 문화교실에서 '점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월 13일까지 매주 수·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점자교육 프로그램은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과 시각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02)385-1671

5월 24일(금)

■서울판화미술제 = 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전관에서 '서울판화미술제'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15년 동안 지하철 '풍경소리' 포스터 판화를 제작해온 강행복 씨의 '달마도', '다산일여', '나루석가모니불' 등 작품 15점과 원로 판화가 황규백 씨를 비롯해 임병중, 박선주 씨 등의 작품 2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02)518-6323

5월 25일(토)

■수원포교당 산악회 '등산대회' = 전라북도 부안 내연산 내소사,

직소폭포, 옥녀담을 찾아 떠난다.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절경 속에 위치한 장건한 천년고찰 내소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해구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수원 북문 농협 앞이고 참가자 제한은 없다. 동차비는 2만원. (017)239-0471

■안상수 '한글디자인전' = 홍익대 안상수 교수의 한글 디자인전이 서울 로망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한글 주련', '한글 만다라', '한국의 이미지-관음의 얼굴'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 주련'은 성철스님과 광덕스님의 법문을 발췌, 불교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02)750-7818

5월 26일(일)

■용진신행회 '청량사철야기도' =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를 찾아,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하는 사람 순례 여행.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종이로 만든 지불(紙佛)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청량사에는, 공민왕이 직접 쓴 '유리보전'이라는 현판이 있다.

이번 성지순례의 출발은 오전 7시 울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4만 5천원. (02)2279-1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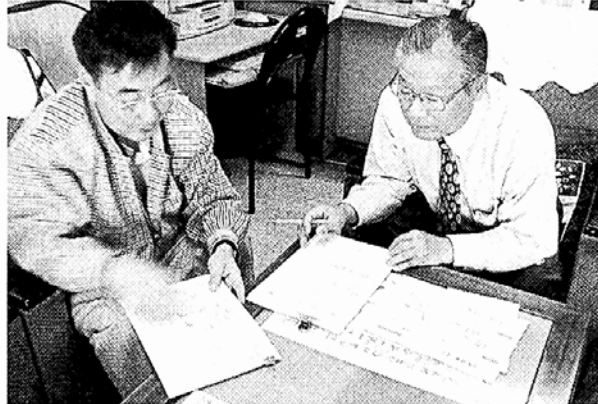
■광주 불교대학 '불교문화 유적 답사' = 부산 불교의 대가람 범어사와 수로왕릉비, 허황후릉, 파사석탑, 조선대 마애불...

부산·경남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볼 이번 답사 여행의 출발은 오전 8시 광주불교교육원 앞. 참가비는 성인 2만 3천원. (062)228-9098

10년 기도...3000일 회향 눈앞에

우리 절 우리 신도

남양주 봉선사 김순경 신도회장



◇봉선사 신도회회는 회장이 아니라 임원들이 중심이 돼 운영된다. 김순경 회장(사진 오른쪽)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준비와 관련한 임원 회의의 결정사항을 총무부장에게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사는 길이 연화장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고 사는 것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짧게 사는 비결을 터득한 것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기도 덕분이다. 사람들을 진짜 놀라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성년 가족 그날 저녁 굶기' 가정규칙 '생활불교 집집의 가풍으로 이어졌으면'

1992년부터 시작한 기도가 500일, 1000일을 지나 1500일, 2000일을 훌쩍 넘었다. 이제 3000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이날도 김순경 회장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전 독송과 참회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한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긴 후 세계적인 메이커로 성장해가자 '부처님 가피'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혼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왔다. 불법은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니라 가

족들과 함께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00일을 이어가는 동안 김 회장 집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생겼다. 어떤 이유에서든 화를 낸 사람은 무조건 그날 저녁을 굶기로 한 것이다. 성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은가족이 독경과 사경으로 1000일 기도를 향한 일은 봉선사 스님들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2000일을 넘기면서부터는 마음까지도 변했다.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제대로 전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며 "이런 생각이 들고나서부터는 회사 일도, 신도회 일도, 문화원장 일도 욕심부리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신도회 일에도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기 보다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장 역할임을 강조한다. 유명무실하던 신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회를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회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임원 수련회 등을 통해 임원 스스로 열의와 덕목을 갖춰 나가도록 도와준 것도 김 회장이다.

추천의 말

일면스님 봉선사 주지



교종본찰 봉선사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익힘은 물론 익힌 것을 실제생활에서 옮겨 실천해 가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구본사의 신도회장이란 어려운 소임을 마다하지 않고 힘을 써오신 돈오 김순경 불자는 그러한 신행을 본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은가족이 독경과 사경으로 천일기도를 회향한 일화는 사중의 스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신도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임원 수련회 등을 직접 관장하며 전가족 불자화에 혼신의 애를 쓰는 모습에서 몸이 맨 신앙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짧게 살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김순경 회장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신도회가 앞장서서 생활 불교, 가정 불교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김 회장은 "가정 불교, 생활 불교가 확산돼 가야 하는데, 기록 신앙에 치우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생활불교로 가기 위해서는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풍(家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권영진 기자

5월 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은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누구나 전법사

◇김태제씨는 전법을 위한 공간인 경기불교문화원을 4월13일 개원했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포교는 불자의 기본의무"

전법은 부처님 가르침의 사 회적 실천이며, 수행의 한 과정이다. 불자들은 누구나 전법사가 될 수 있다. 아니, 마땅히 되어야 한다. 보시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수도 없이 법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제(45) 경기불교문화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불자다. 그의 신심이 부인과 1남 2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하다. 20여년의 직장 생활 동안에도 그는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써 또는 묵언의 행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포교는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난 4월 13일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경전, 전통문화 등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큰스님 초청법회 등 불교 대중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불교연합회를 비롯한 20여 개가 신단체들도 이 곳에 입주시켰다.

그가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 불교문화원 불사를 주도한 이유는 직장생활로 인해 사찰에 찾아가지 못하는 재가불자와

불교에 관심을 갖고도 사찰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평소 전법 활동을 실천했던 자신의 삶을 경기불교문화원을 통해 확장시킨 것이다.

"부처님 법을 이 사회에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들이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전법 선언을 통해 전법의 목적과 방법, 법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 오로지 깨끗한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눈에 티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라."(전법륜경)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은 이같은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고인이 투철한 인식과 불자다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박봉영 기자

자연의 맛 229가지

#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한국인의 건강식 사찰음식

"음식을 약으로 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계절의 음식을 먹어라. 골고루 섭취하라.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 2천5백년 전 이미 최고의 영양사였던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도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식, 자연식인 동시에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선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가정 생활 문화 지

designhouse inc.

www.design.co.kr • www.homeliving.co.kr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71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윤필려 양장본 | 240쪽 | 값 13,500원

눈물이 짙음 가슴이 두근 010권

# 운주사의 하얀도깨비

"부처님, 제발 못생긴 은희의 얼굴을 고쳐 주세요."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꿈과 잃고 천년을 누워 계셨던 부처님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난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도깨비 마을에서 쫓겨난 구박덩어리 하얀도깨비가 참된 우정으로 부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책을 선물하세요.

디자인하우스

designhouse inc.

www.design.co.kr • www.dhbook.com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71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지은이 김자환 | 그린이 김태환 | 윌 컬러 | 값 7,500원